

## 소아에서 체중에 따른 우울 성향의 비교

이지현, 이흥철, 서영성, 김대현

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

**연구배경:** 비만아동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직면하여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갖거나 우울감이나 불만족하기 쉬운 경향이 있다고 한다. 본 연구에서는 일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체중에 따른 우울 성향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.

**방법:** 대구 소재 일개 초등학교 5, 6학년 464명을 대상으로 하여 우울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한국판 소아우울척도(Children's Depression Inventory, CDI)를 사용하였으며, 이중 설문지를 완성한 380명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. 학교 신체검진에서 측정된 신장과 체중으로 체질량 지수(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것, BMI)를 구하여 비만군(성별, 연령에 비교하여 95 백분위수 이상), 비만 위험군(85~94 백분위수), 정상군(85 백분위수 미만)으로 구분하였다. 성별, 체중군에 따른 CDI 점수를 비교하기 위해 t-test, 일원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.

**결과:** 1. 대상자 380명의 평균연령은 11.2세였고, 남아가 212명(55.8%), 여아가 168명(44.2%)이었으며, 정상군은 261명(68.7%), 비만 위험군은 78명(20.5%), 비만군은 41명(10.8%)이었다. BMI 평균은 19.2였고, CDI 평균은 15.6이었다. 2. 성별에 따른 CDI 평균은 남아에서 15.2, 여아에서 16.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( $P=0.219$ ). 체중군에 따른 CDI 평균은 정상군에서 15.6, 비만 위험군에서 15.7, 비만군에서 15.2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( $P=0.934$ ), BMI 증가에 따른 CDI 점수의 증가도 없었다( $r=-0.051$ ,  $P=0.322$ ). 3. 남아에서 체중군에 따른 CDI 평균은 정상군에서 15.4, 비만 위험군에서 15.4, 비만군에서 13.5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( $P=0.412$ ). 여아에서 체중군에 따른 CDI 평균은 정상군에서 15.8, 비만 위험군에서 16.2, 비만군에서 17.9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( $P=0.572$ ).

**결론:** 비만아동에서 우울 성향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체중군에 따른 우울 성향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 그러나 표본이 작은 점, 우울 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아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.

**중심단어:** 소아, 우울, 체질량지수